

'수도권 대체매립지' 찾는다... 특별지원금 3000억 추가 지원

환경부·서울시·인천·경기 공모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3차 실시 전 공모비 부지 90㎡이상으로 축소



정부청사 내 환경부 건물. /뉴스

환경부가 2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짜여진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른 모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가 4차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이번

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 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자치단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또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

하도록 축소했다.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4차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합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며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순환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는 주춤했다. 환경부는 "이후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차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3차 공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강 자전거대여점 운영자 선정 등 부적절

서울 옴부즈만, 부서 경고 등 처분 사용 허가·사용료 징수 적정성 등 여부 낙찰자 결정 후 '일시납 → 분납' 허용



시민들이 망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서울시 소관 부서가 서울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아 부서 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작년 7월 25일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 허가 관련 고충 민원을 접수해 9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래한강본부 시민활동지원과를 대상으로 직권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해당 부서는 시정 요구·부서 경고·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감사내용은 ▲한강 자전거대여점 입찰 공고와 낙찰자 선정 과정 적정성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업무 적정성 ▲한강 자전거대여점 행정 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의 계약 공정성 여부 등이었다.

감사 결과 본부는 2023년 한강 자전거대여점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에 사용료 납부 방법을 '일시납'으로 공고했으나, 낙찰자 결정 이후 사업자가 '분할 납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허용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법에 의거, 본부가 낙찰자 선정 이후 분할 납부를 허용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업무 처리가 적절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부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본부는 향후 입찰 공고문에 '사용료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별도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공고에 '자전거대여점 운영 중 각종 인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대인배상 1인당 2억원·사고 건당 2억원, 대물배상 2억원)에 가입하고, 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 증권 사본을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낙찰자가 제출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대인배상만 1년 가입되고 대물배상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현 운영자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물배상 가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업손실에 따른 수허가자의 허가 취소와 함께 기존 운영자들의 퇴거 지연으로 인한 무단 점유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본부는 중도 계약 해지 신청 조항을 신설해 중도 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운영 공백, 사용료와 변상금의 체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고양시 함께한다

서울시, 김포·군포·과천 이어 확장



오세훈 서울시장(우)과 이동한 고양시장(좌)이 '서울-고양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고양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고양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경기 김포·군포·과천시에 이어 고양시로 기후동행카드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한 고양시장도 참석해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나눴다.

1기 신도시인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다. 삼송·원흥·향동·덕은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양 도시를 오가는 출·퇴근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양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수도권 공동 발전 차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지하철 3호선 10개 역사(대화~삼송), 경의중앙선 10개 역사(탄현~한국항공대), 서해선 6개 역사(일산~능곡)를 포함해 총 26개 역사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774번 버스 등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0개 노선·348대가 포함돼 있다"며 "향후 양 도시를 통근·통학하는 15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고양시 지하철 26개 역사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상반기 중 관련 협의 및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역사의 운영기관인 코레일과도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며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유아 영어유치원 월평균 120만원 넘어

지난해 사교육비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유아 영어학원 비용이 월평균 120만원을 넘어섰다.

2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및 기타경비는 2023년 12월 기준 121만원이다.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9000원, 월평균 기타경비는 10만1000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48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142만5000원

▲서울 141만 7000원 ▲충남 137만 4000원 순이었다. 2019년 615개였던 유아 영어학원 수는 이듬해 700개를 넘어섰으며 2022년에 811개, 2023년 842로 늘었다.

2023년 한 해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내 유아 영어학원 특별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303곳, 적발 건수는 522건에 달했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3월 26일(화) 음력: 2월 17일

수도권 날씨 5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4/14, 동두천 4/15, 가평 4/15, 파주 4/14, 서울 5/14, 양평 5/14, 인천 4/13, 수원 4/13, 용인 4/13, 평택 5/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바이든-트럼프, 루이지애나 프라이머리 승리... 대선후보 이미 확정
▲ 트럼프, '6000억원 벌금 보증금' 납부 기한 압박... 부동산 압류되나 /사진 뉴스

▲ 중국 헝다그룹,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철회
▲ 러시아 국방부 "美 전략폭격기 접근 차단... 우크라이나 미사일 22발 격추"



▲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장관... 양국 긴장 속 주요 당국자 회동[이-팔 전쟁]
▲ 보름여 남은 기시다 방미... "美日, 주일미군사령부 개편 발표" /사진 뉴스